

“골목반상회·광산100인참여단 등 따뜻한 자치공동체 만들기 힘쓸 것”

민선 6기 2년 설계
민형배 광산구청장



**넓은 관행·제도 과감히 철폐
주민 생명·안전 공익 최우선
40개 시책 100대 정책 추진**

또한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정착, '골목반상회' 개최, '광산100인참여단' 운영, '마을등대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했다.
광산구는 또 지난 2월 공유축진 조례를 선포하

고, 4월에는 '소유를 넘어 공유로'를 주제로 공유도시 선포식도 가졌다.

물건, 정보, 공간 등을 주민들이 나눠 쓰며 남비는 줄이고, 자원 활용도는 높이는 공유도시 운동을 통해 광산구는 주민 만남과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광산구는 지난해 8월 광산구 내에 신설한 경정소통센터를 통한 골목반상회, 광산100인 참여단을 운영해 주민참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 반상회를 자치시대에 맞게 부활시킨 '골목반상회'는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장이다.

이미 신창동 가구의 거리 주민들은 정기적인 마을 울렷 추진을 결정하고, 월곡2동 주민들은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골목반상회는 동과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 모임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아울러 자치·행정, 문화·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뉜 주민들이 생활 속 아이디어와 제안을 구정에 직접 전달하는 '광산100인 참여단'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복지지향에 광산구는 일찍부터 복지현장으로 마을에 주목했다. 마을이 한 단위가 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광산구의 '마을등대 프로젝트'는 이미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됐고, 마을복지공동체를 목표로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형배 정장은 "어려운 시기 나와 이웃의 삶을 지키는 방법은 공공성의 확장과 더불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강원·대구 의용소방대원 70여명 주말 광주 찾아 U대회 열띤 응원

광주하계U대회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강원도, 대구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광주를 방문했다.

지난해 7월 강원 소방헬기 추락사고 당시 보여준 광주시민들의 정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강원도 의용소방대원과 올해 초 의용소방대 달빛동맹을 계기로 광주에 온 대구 의용소방대원들이 광주를 찾았다.

10일 오후 조선대체육관에서 태권도 경기를 관람한 강원도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은 U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며, 광주시민들에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은 11일 오후 호남

대체육관에서 배구대회를 관람하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

김원철 전국의회용소방대연합회장은 "지난 7월 부산의용소방대원들의 방문에 이어 멀리 강원도와 대구에서도 U대회를 응원하러 와주셨다"며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용소방대원 15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지하철역, 광천터미널, 공항, 송정역 등 24곳에서 U대회 관람객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U대회 '달빛동맹' 응원단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50명이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최근 광주를 찾아 광주하계U대회 경기에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해마다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 도시 간 여성지도자 교류사업과는 별개로 U대회 응원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도박·음주 등 중독 예방 수기·웹툰 공모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중독 예방 방법 및 회복 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주최해 중독예방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거주 일반시민과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공모는 수기, 웹툰 등 2개 분야로, 수기의 경우 '음주 및 기타중독 회복사례'로 ▲중독자 및 가족이 경험한 회복사례를 자유산문 형태이며, 웹툰

은 '중독폐해예방'으로 ▲스마트기기, 도박, 음주, 흡연, 약물(마약) 중 예방관련 주제를 다룬 스크린 형태의 웹툰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vision-mh.wangju.go.kr),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cafe.daum.net/koalcc), 대한보건협회(www.kpha.or.kr)에서 내려받아 웹툰은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팀, 수기는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에 각각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팀(062-600-1960)으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원전 안전 규제·감시 권한 원안위서 지자체 이관해야”

광주시·전남도 제도 개선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 외함)에 대한 용접부위 검사 오류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한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원전안전에 대한 규

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검사 중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자료를 원안위에 확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오류가 확인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24기에 대한 조사에서 16기

에서 동일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이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문제를 제기해 오류가 밝혀진 것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허술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통한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전문기관 감시기구 확대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조만간 중앙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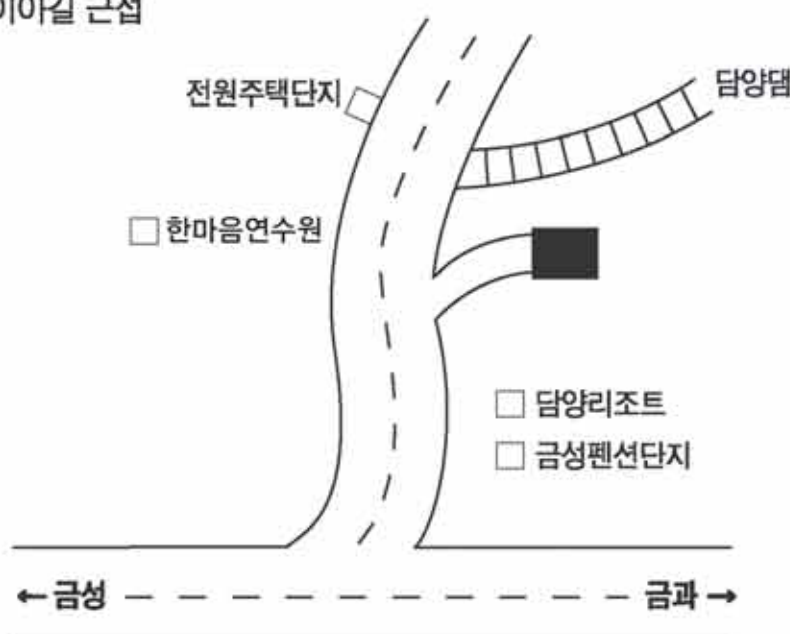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원주택 · 펜션 · 찻집 · 요양(병)원 · 연수원 · 식당 적합!

돈 · 빌려 주실 분!

- ▶ 3억원 이상
- ▶ 연 12% 확정 이자
- ▶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중
연 3억 순수의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시설 자금 및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감정가 28억 / 시세 33억 정도
- 매매 - 22억원(이전비 없음, 법인체 인수)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주인직매 H. 010-3605-5000